

러 시 아

**러시아 군산복합체의 대외 방산협력현황**  
- 전환기적 상황극복을 위한 무기수출 활성화 -

**군산복합체의 전환기적 상황**

1993년 러시아에서의 무기군사장비의 생산량은 1991년도에 비해 단지 47.8%에 지나지 않았으며, 항공기와 헬리콥터 생산은 3.8배 저하되었고, 기갑차량은 5배이상, 군수품은 4.5배, 전기산업에서 무기생산 할당량은 5.4배나 감소했다. 현재 러시아는 방위예산의 약 23%만을 방산업체에서 생산한 무기구입에 지출한다. 1993년에는 예산금액의 70%를 차지했는데, 대조적으로 미국에서는 무기구입과 군사장비에서의 지출감소는 한해에 5~6%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러시아에서 무기 생산감소의 비율이 미국보다 몇 배나 더 높은 것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에 놓여 있는 러시아는 경제 약화의 추세가 가속되고 있다.

1993년말에 제품화된 기술과 완성된 연구개발 시제품을 위한 방위산업에 대한 정부 부채가 1조 루블정도였다. 이 계획과 관련 직원들 -그들의 봉급은 일반 민수산업계열의 종사자들보다 1.6배나 낮았다- 의 입장은 기존 방산기업이 누려왔던 특혜에 비하면 더욱 어려워져 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계속적으로 양질의 연구원들이 떠나가, 1993년말에는 전체의 30%정도나 되었다. 이상은 러시아 방위산업부문에서 직면하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나열한 것이다.

러시아 정부가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군수산업 복합체 역시 새로운 것으로의 변화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지만, 국내 무기 시장은 상당히

위축되었고, 특정부문의 무기와 군사기술은 와해되고 있다

하지만 1993년 11월 2일 엘친대통령승 1833호인 러시아 연방군사 독트린의 기본 규정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 신군사독트린의 군사 기술적·경제적 원칙에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즉 러시아 연방의 군사 기술적 군사안전보장의 기본 목적은 러시아 연방군 및 기타 부대에 효과적 무기체제, 군사-전문 설비, 군수품을 사회와 국가의 절실한 이익을 수호하기에 필요 충분한 양만큼 공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주요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무기체계 및 군사장비계획(10년에서 15년) 및 국가가 발주하는 군수계획을 설계하고 시행하며, 시장경제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러시아 연방의 군사-기술적 및 경제적 독립성을 보장해 주는 산업의 구조적 개편을 이룩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유형태의 변화 상황에 대처하여 무기체계, 군사-전문설비, 군수품의 개발 및 생산의 국가관리체제를 완비한다는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원으로 군수발주를 보장하고, 무기체계, 군사-전문설비, 군수품 생산 활동의 수행에 있어 다양한 소유형태의 기업에게 경제적 흥미를 유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재정적-경제적 조정 체계와 메커니즘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의 군 및 기타 부대에 대한 무기 및 군사설비의 보급은 러시아 연방 정

## 러 시 아

부 즉 각료 회의에 의해 작성되는 방위산업능력을 보장하며, 연구·개발·생산, 그리고 무기, 군사-전문설비, 군수품의 보증·감독 및 이용을 담당하는 기업(조직)이 방위산업 능력의 물적 기반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방위산업능력 발전에 관하여는 국가의 군수 발주의 시행을 보증할 수 있는 기초적·탐색적 응용적 연구수준, 유망한 과학·기술적 개발수준, 기업(조직)의 과학 실험적 시험적·생산적 기반의 발전수준을 확보하고, 국가 군사안전보장의 요구사항, 군수생산의 민수전환, 그리고 국가경제의 효율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방위산업능력과 그 하부구조를 합리적이고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며, 주요 품목의 완전한 생산 사이클을 위해 필수적인 무기체계, 군사-전문설비, 군수품의 생산 및 수리능력을 갖추고 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세계 여러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의 군사·정책적 입지를 강화하며, 국가의 필요, 민수전환의 발전, 군수생산, 병기의 해체 및 재활용, 국방산업의 구조개혁을 위한 화폐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방위산업분야에서의 과학·기술적 실험적 기반, 그리고 이들의 과학-연구, 실험-설계 관련 기관과 조직을 발전시키며, 무기 체계, 군사-전문설비, 군수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기관과 조직원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대외무기수출의 활성화

러시아 연방의 대외군사 기술적 협력이란 관점에서 보면, 외국과의 군사 기술적 협력을 조직함에 있어 러시아 연방은 자국의 군사·정책

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을 균형 있게 보장할 필요성을 중시하고 있다. 군사-기술협력은 국가의 권한이며 러시아 연방 법률 및 러시아 연방이 참가하는 국제 조약에 근거하고, 러시아 연방은 상호 호혜원칙에서 방위산업능력을 구성하는 독립국가연합 소속기업과 또한 그들의 분야별 과학기술연구기관의 협력관계를 재건하고 확대하는 데에 우선적인 비중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정책기조에 의하여, 1990년대 러시아의 국가별 방산협력현황은 다음과 같다. 러시아의 주문 무기판매시장을 보면, 현재 러시아는 47개국에서 무기를 판매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리스트에 올라 있는 국가들은 이라크, 쿠웨이트, 유고슬라비아, 이디오피아, 캄보디아 등이며 또한 불연속적이긴 하나 예멘과 북한에도 이루어지고 있다. 니카라과아와의 군사기술 협력은 현재 중지상태에 있으며 쿠바, 라오스, 베트남 등과도 별로 활발하지 못하다. 또한 러시아는 1991년 12월부터 아프카나스탄에게 무상의 무기공급을 중지했다. 하지만 이 나라가 향후 몇 년동안 전쟁을 치르기에 충분한 무기를 가질 수 있도록 수출은 허락하고 있다.

중동은 언제나 러시아에게 최고의 무기시장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들 나라들은 끊임없이 지역 분쟁을 일으키거나 준비중에 있기 때문이다. 한편 러시아는 여전히 동유럽의 무기 시장-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독일 등지에서 무기수출의 4분의 1을 담당했었다.

경쟁국들은 러시아의 기존의 시장, 즉 이라크, 리비아 등에서 적극성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심지어 인도와 이웃 핀란드도 위협받고 있다.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스위스, 스웨덴, 브라질, 싱가포르, 그리고 한국 등의 국가들이

## 러 시 아

러시아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경쟁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새로운 무기시장을 개척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입지가 다소 약해진 지역에서는 이를 회복하려고 하고 있다. 바로 남동부 아시아(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타이완, 필리핀), 아프리카(모로코), 페르시아灣(사우디 아라비아), 라틴 아메리카(페루) 등의 나라들이다. 러시아에서 가장 가망성 있는 국가들은 남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인 것 같다. 그러나 이 나라들에는 약간의 문제들이 있는데, 남아프리카는 9개의 위성을 착륙시키는데 러시아의 SS-25미사일을 사용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더욱이 Armscor사는 MiG-29기와 레이더 장치를 우크라이나로부터 구입하려 하고 있다.

1995년 러시아의 대아시아 무기시장공략에 따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러시아 전시회를 계획하고 있으며 타이완은 러시아에게 MiG-29의 가격의 문의와 1500대의 탱크, 함대 그리고 크고 작은 무기들을 구입하겠다는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중국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타이완을 인정해 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일부 관계자는 타이완이 러시아에게 요청만 한다면 중국이 구입하고자 하는 어떤 무기도 타이완에게 팔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파키스탄 또한 Su-27과 MiG-29기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러시아의 가장 큰 무기 수입국인 인도와의 관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 전문가들에 따르면, 러시아의 주 고객은 중국, 이란, 시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그리고 타이완으로 이들이 현재 러시아 무기수출의 80%를 차지한다. 여기서 알고 넘어가야 할 것

은 러시아가 무엇을 팔고 있으며 누구에게 팔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제조건으로, 러시아에서 생산되거나 그럴 예정인 모든 무기는 원칙적으로 판매가 허용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무기, 핵분열 물질, 그리고 생화학전에 사용이 가능한 화학적/박테리아성 물질은 여기서 제외되고 있다.

중국은 러시아에게 있어 중요하고도 믿을 만한 고객이다. 이 나라는 레이더 장치를 포함해 육군, 공군 등을 위한 여러 무기나 그 설비 및 재료를 구입해 왔다. 러시아는 26대의 Su-27기와 100대도 더되는 S-300 대공시스템을 공급해 왔다. 재래식 공격 잠수함 또한 구입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중국 해군이 구소련 당시 구입했던 잠수함이 노후화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4년에도 상당수의 잠수함을 계약 도입했다.

그러나, 과거 러시아는 이란에게 3대의 잠수함을 판매한 것에 대해 워싱턴 측에게 혹독한 비판을 받았었다. 물론 중국과의 거래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중국은 또한 미완성된 항공수송기 VARYAG, V/STOL 헬리콥터 수송기 MINSK와 NOVOROSIISK를 구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능할 것 같지가 않다. 왜냐하면 일본, 미국, 타이완 등에 의해서 심한 반대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이란의 경우 소련은 1984년에서 1987년까지 이란에게 무기를 공급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러시아는 이란에게 3억 5천 달러어치의 무기를 공급하겠다는 옛 소련과의 계약을 넘겨받은 상태에 있다. 가장 큰 계약은 6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1989년에 맺어진 것이다. 한 소식통에 의하면 이 금액은 그 당시 이란에 의해 일시 불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최근 이란

## 러 시 아

에게 넘겨준 소련/러시아 무기는 200대의 MiG-29기, Su-24전투기, 수백 대의 T-24탱크, KILO급 잠수함이다. 현재 이란은 러시아의 VOLGA(SA-25 GAMMON), BUK(SA-11 GADFLY), STRELA(SA-13 GOPHER)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인도는 오랫동안 러시아의 주 무기 거래국이었다. 1985년에서 1990년까지 인도는 당시 구소련에게 1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구입했고 이는 인도 총 무기 수입의 70%에 해당한다. 그 결과 인도 탱크의 50%, 잠수함과 함대의 90%가 구소련에서 구입된 것이다. 또한 26대의 MiG-29와 T-72탱크 BMP-3 MICV, TUNGUSK 대공 SP시스템, 수송용 헬리콥터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에 있다.

그리고 인도는 V/STOL수송기 MINSK의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 러시아는 또한 MiG-31 요격기, 그리고 1994년에 생산을 시작한 S-54 트레이너 항공기를 제공했다. S-54 트레이너 항공기는 또한 MiG-21을 대체할 輕공격기로 쉽게 변형될 수 있다.

1992년에 러시아와 인도간에는 러시아가 인도에게 6억 달러 상당의 외상거래를 허락하겠다는 협상이 이루어 졌다. 이 중 4억 달러는 1993년과 1994년 중에 러시아의 무기재료를 구입하는데 쓰여질 것이다. 현재 인도의 국방성은 약 2억 8천만 달러(주로 항공기와 부품구입)의 계약을 맺었는데 이 중 1억 달러도 넘는 양이 러시아로부터 외상으로 구입될 것이다. 현재 인도는 남아 있는 외상구입여지를 26대의 MiG-29를 구입하는데 쓰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외의 구입은 순수한 상업적 거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무기구입에 외상거래를 허용한 러시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익을 보았는데 즉, 무기 판매국으로서의 잠재력을 인식시켰고, 현재 남아도는 무기제조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세계 무기시장에서 러시아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재정적자와 외화난을 겪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이와 같은 거래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중동과 걸프해안 지역은 러시아 무기수출에 있어 가장 매력적인 무기시장으로 꼽혀진다. 비록 걸프전이 수 많은 소련 무기들의 무능을 증명하긴 했지만 몇 국가들, 즉 시리아, 이라크, 리비아 등은 구소련시 구입했던 무기를 보완하기 위하여 부품들을 구입하려 하고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페르시아만 국가들 특히, 사우디아 리비아는 그들의 무기 체제를 바꾸려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최신예 무기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랍 연맹국은 US M-2 BRADLEY와 British MICV-80 WARRIOR 보다 우수하다고 평가되는 무장 장갑차량 BMP-3을 주문했다. 이 지역에서 판매 가능성이 있는 무기로 T-80U 탱크, S-300 지대공 요격미사일, TOR 대공시스템, MSTA-SSP, 대전차 등이다. 서방 특히 미국에서의 의존성을 탈피함으로써 그들의 무기체제를 바꾸려는 각국의 시도가 바로 러시아 무기수출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중동국가들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기타 국가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이다.

터키는 최근 7천 5백만 달러에 해당하는 25개의 APS와 20개의 수송용 헬리콥터를 구입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무기를 구입한 NATO의 첫번째 국가가 되었다.

## 러 시 아

러시아는 말레이시아와 총 8억 달러에 해당하는 MiG-29기, 16대의 MiG-35헬리콥터의 기록적인 거래를 협상 중에 있으나, 이 거래는 사실 어려움이 많다. 이는 비록 말레이시아 정부가 MiG-29와 E/A-18을 구입하겠다는 정치적 결정을 내렸고 의회도 이에 동의했지만 현재 미국이 MiG-29의 대체 무기로 F-16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러시아가 기확보한 시장에서, 러시아를 몰아내기 위하여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발휘하느냐가 문제이다.

미국은 휴대용 미사일 IGLA와 IGLA-1 MANPADS를 구입했다. 이전에 또한 Yak-141 초음속 V/STOL 항공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미국의 러시아 무기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항공모함분야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에 있어 러시아의 과학적, 기술적 우위는 논의의 여지가 없다.

유럽의 경우, 한동안 영국은 Beryev DE-4 RUSALCHKA항공모함이 NIMROD를 대신할 MP/ASW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곧 사라져 버렸다. 한편, T-80 탱크가 현재 채택여부를 두고 스웨덴에서 시험 중에 있으며 곧 구입이 이루어질 것이다.

1993년 7월 독일의 Luftwaffe는 구동독 공군에서 인양된 24대의 MiG-29기들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것은 Squadron을 탑재해 있으며 독일 공군기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우수한 항공기이다.

헝가리 또한 28대의 MiG-29를 구입하기 시작했다. 이 항공기들은 러시아가 헝가리에게 진약 8억 달러의 빚을 갚는데 한 몫을 할 것이다.

그러나 헝가리는 사실 S-300대공 시스템을 요구했었다. 그러나 결국 러시아가 제시한 MiG-29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헝가리는 이 거래를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한편으로는 그들은 F-16기를 더 원했기 때문이고, 또한 MiG-29의 부품이나 기타 보관을 위해 러시아에게 장기적인 의지를 해야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인도를 비롯한 靑리시아 국가들은 외상거래를 바라고 있다. 만약 어떤 혁신적인 재정 및 지불방법을 찾을 수 없다면 지금까지 언급된 거래의 성사여부는 불투명하다 하겠다. 아울러 러시아는 기존의 무기수출 국가뿐만 아니라, 새로운 무기수출가능국가를 개척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한국이 매년 개최하는 『국제 군수산업 전시회』에 러시아 정부 및 방산 관련 기관들이 1995년에는 규모를 작년보다 대폭 증가시키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金 容 煥

〈KIST 한·러센터, 선임연구원〉